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관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5



研究機關 江原大學 統一問題研究所

研究委員 金 井 厚

目 次

I. 序 論	5
II. 南北對話와 非武装地帶의 役割變化	9
1. 非武装地帶의 設置過程과 役割	9
2. 平和利用을 위한 共同開發의 必要性	14
3. 期待되는 效果	17
III. 非武装地帶開發과 南北의 利害關係	20
1. 南北統合의 妨害要因	20
2. 南北의 利害得失과 戰略의 予想	23
3. 利害調整과 与件造成	28
IV. 非武装地帶平和利用에 관한 諸主張	34
1. 平和利用主張의 動機와 類型	34
2. 韓國政府의 提案	38
3. 軍事停戰委에서의 「로저스」提案	39
4. 國際平和地帶 (IPZ) 案	41

V. 非武装地帯の 平和的 開発利用方案	48
- 融合地帯化方案 -	
1. 境界線 軟化過程	48
2. 共同開発利用の 目標と 接近方法	53
3. 共同開発利用の 段階と 内容	57
(1) 数個の 南北通路開設	57
(2) 数個の 마을 및 농장의 建設	59
(3) 共同學術調査事業	59
(4) 共同開発利用計劃樹立	60
(5) 共同管理機構設立	61
(6) 共同事業の 実施	62
VI. 結 論	64

要 約

非武装地帶는 休戰確保의 役割을 해온 反面에 緊張造成의 震源地 노릇도 해오고 있으므로 이를 開發하여 平和的으로 利用함으로써 武力行使可能性을 抑制하고 緊張을 緩和시킬 必要가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 地帶를 南北을 接合시키는 融合地帶 化함으로써 統一을 促進시키는 積極的인 役割을 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흔히 非武装地帶의 開發利用은 統一의 마지막 段階에 解決될 性質의 問題이며 다른 問題에 앞서 解決될 可能性이 적다고 생각하거나 軍事的, 政治的 問題를 先行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本 研究結果는 南北의 利害關係調整과 國際的 與件造成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問題보다 有利한 狀況에 있다는 것과 軍事的, 政治的 問題를 먼저 問題삼지 말고 現狀態에서 可能的 部分的 開發利用을 점차 擴大시킴으로써 結果적으로 軍事問題와 政治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는 結論에 到達한다.

이를 위하여 南北의 利害關係와 戰略을 予想하고 與件造成을 모색했으며 平和利用에 관한 諸主張을 分析해 보았다.

끝으로 非武装地帶를 段階的으로 開發利用할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平和地帶, 交流地帶, 融合地帶라는 段階를 設定하고 이에 接近하기 위한 方法과 課題 그리고 그 實踐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I. 序 論

非武装地帯(DMZ)는 韓國戰爭의 産物로서 休戰을 效果的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設置한 軍事的 緩衝地帯이다.

따라서 이 非武装地帯가 어떤 狀態로 維持되고 있는가는 韓半島의 情勢와 韓國問題의 現在의 狀態를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1953年 7月 27日 休戰協定이 調印된 이후에 非武装地帯에서 發生한 各種 衝突事件과 이로 인하여 야기된 緊張狀態의 程度는 그때 그때의 韓半島情勢를 決定해 왔다. 그리고 非武装地帯가 設置된 이래 지금까지 20年 동안 그 本來의 性格과 役割이 變化되지 않고 繼續되어 왔다는 것은 韓國問題에 있어서 根本的으로는 아무런 進展도 없이 休戰當時의 狀態가 持續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反面에 이러한 事實에서 韓半島情勢와 南北關係에 어떤 轉機가 마련되면 必然的으로 먼저 非武装地帯에서 그 狀態와 役割에 어떤 形態의 變化가 招來될 것이라는 予想을 할 수 있다. 이러한 予想은 7.4 共同聲明을 前後하여 非武装地帯에서 北韓側의 挑發이 없어졌던 지난 3月 15日 平壤에서의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會議에서 北側이 보인 냉담했던 態度와 그 前後로 나타난 잇단 挑發事件을 聯시켜 볼 때 더욱 分明해진다.

그리고 한걸음 나아가 積極的으로 非武装地帯의 狀態와 役割을 變更시킴으로써 南北關係의 現狀態를 打開할 수 있는 可能性과 그렇게 할 必要性을 또한 여기에서 發見한다. 다시 말하면 非武装地帯에서의

緊張要素를 除去하고 이를 共同으로 開發하여 平和的으로 利用함으로써 韓半島全體의 緊張을 緩和시킬 수 있고 南北統一의 重要한 基盤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라는 事實이다. 그것이 반드시 必要한 것은 南北間의 武力 衝突可能性을 보다 높은 次元에서 抑制할 수 있고 따라서 緊張을 解消할 수 있으며 相互理解와 信賴를 增進시키고 보다 緊密한 接觸, 交流와 協助의 바탕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과 그 平和的利用의 問題가 이와같이 重大한 意味를 가지고 있고 그 미치는 影響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問題의 解決에는 여러가지 事項이 결부되어 있고 따라서 어려운 것도 事實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非武裝地帶의 問題는 곧 韓半島問題의 縮小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事項이 必然的으로 問題될 것이다.

첫째, 非武裝地帶 自体가 休戰協定에 의하여 設定되었기 때문에 南北問題에 있어서 가장 難題이고 窮極的인 問題의 하나인 軍事問題가 이에 直結되어 있다.

둘째, 韓國戰爭의 國際的性格때문에 그 戰後處理問題가 되는 非武裝地帶問題 역시 國際的인 觀心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利害關係가 얽힐 수 있다.

셋째, 南北韓의 統一政策과 戰略의 相異, 그리고 諸般條件의 差異에서 開發利用에 대한 南北의 利害得失과 主張이 相反될 可能性이 많다.

네째, 節次的인 事項으로서도 非武裝地帶의 管轄權問題와 그 근거인

休戰協定の 当事者問題, 停戰委員會의 代表權問題 등이 해결 되어야 하고 결국 協定內容의 變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南北關係의 設定이라는 問題까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軍事的, 政治的 關聯性 때문에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과 平和利用의 推進은 南北對話의 進展狀況과 韓半島周邊의 國際情勢의 變化에 민감하게 그 步調를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南北關係의 現實과 周邊情勢를 無視한 主張과 方案은 實現될 수 없을 것이며 反對로 南北關係의 進展과 改善에도 不拘하고 非武裝地帶를 지금과 같은 狀態로 維持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關係改善과 進展을 가로막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非武裝地帶에서 야기되는 사태가 그 동안의 接觸 結果를 무산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造成할 가능성마저 排除할 수 없다.

따라서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우선 健全한 制衡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非武裝地帶의 設置過程과 지금까지의 狀態 및 担当해온 役割을 再檢討하고 平和利用을 위한 共同開發의 必要性和 期待되는 效果를 分析하였다.

다음에 共同開發利用을 可能하게 할 利害調整과 与件造成의 方法을 考察하였다.

그리고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關한 政府의 對北韓提案과 기타의 主張 및 方案을 檢討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目的下에 어떤 段階를 밟아서 어떤 分野부터 開發하고 어떻게 利用할 것인가 하는 具體的

方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여러 事項을 分析하고 開發利用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7.4 南北共同声明의 精神과 合意된 統一原則을 지향하여야 할 大前提로 삼고 그간의 南北對話過程에서 나타난 經驗的 事實을 實踐的 教訓으로 삼는 立場에 섰다.

그리고 本 研究의 方法論으로서는 決定作成에 있어서의 葛藤關係를 다룬 Game theory 와 理念과 體制에도 불구하고 集團 또는 國家間的의 協力 및 統合可能性을 다룬 Functionalism 및 産業社會發展과 體制接近을 다룬 Convergence theory 등에서 開發한 理論的 成果에서 많은 암시를 받았으며 國境의 變遷過程에 대한 Historical approach 에서도 非武裝地帶의 發展段階를 設定함에 있어서 많은 교시를 받았다.

이것은 韓國의 再統一이 諸般條件에 비추어 보아 短時日內에 全面的으로 즉 融合的으로 이루어질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判斷과 獨逸에서 보는 바와 같은 一民族二國家形態는 歷史적으로 보거나 民族意志로 보거나 容納될 수 없다는 判斷下에 비록 長期間이 所要되고 現在 우리가 觀念하는 統一의 意味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지라도 점진적으로 통합의 方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現實的 要請에 의한 것이다.

II. 南北對話와 非武装地帶의 役割變化

1. 非武装地帶의 設置過程과 役割

非武装地帶의 共同開發과 平和的 利用은 非武装地帶의 現狀變更을 뜻하고 그것은 곧 休戰協定의 內容變更을 意味한다. 따라서 開發利用의 方案과 接近方法을 모색하기에 앞서 休戰協定 및 非武装地帶의 性格과 內容 그리고 그 設置過程과 지금까지의 役割을 考察해볼 필요가 있다.

韓國休戰協定 前文에서는 「... 최후적인 平和的 해결이 달성될 때 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確立할 目的으로...,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된다」라고 協定의 目的과 性格을 分明히 밝히고 있다. 즉 일체의 政治的 요소는 배제되고 순수한 군사적 問題에 국한된 것이다.

이것은 會談의 性格에서부터 特色지어졌던 것이다. 1951年 6月 23日 「말리크」소련대표가 유엔에서 休戰을 正식으로 提案한 직후 「그로미코」소련외무차관도 「모스크바」주재 미대사인 「커크」에게 休戰會談은 순전히 軍事的으로만 다룰 것이라고 통보한바 있다(板門店, 金錫當著 p.100).

한걸음 나아가 休戰協定 第2條 第13項에서는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최고위정치회담을 進行하여 平和的 解決을 達成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또 第4條 第60項은

「한국군제의 平和的 解決을 確保하기 위하여 쌍방군사령관은 양당사 국정부에 대하여 이 休戰協定이 서명되고 効力이 發生한 後부터 3 個月以內에 고위정치 회담을 열것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會談이 바로 失敗로 끝난 「제네바」會談이다.

다음에 非武装地帶에 관한 休戰協定 第1條 第1項 내지 第11項 과 第13項의 規定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軍事分界線을 確定하고 각기 2 km씩 후퇴함으로써 非武装地帶을 設定한다.
- ② 軍事分界線의 位置는 休戰成立當時의 兩軍의 대치선을 原則으로 한다.
- ③ 北方 및 南方 境界線으로 確定된 非武装地帶을 緩衝地帶로 함으로써 敵對行爲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한다.
- ④ 軍事分界線과 非武装地帶의 南北方境界線에 明白한 標識物을 建立한다.
- ⑤ 雙方은 非武装地帶內에서 또는 非武装地帶로 向하여 어떠한 敵對行爲도 敢行하지 못한다.
- ⑥ 非武装地帶에의 出入은 民事行政 및 救災事業의 執行에 관계되는 人員과 停戰委員會의 特定許可를 얻은 人員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民間人이나 軍人이나 許可되지 않는다.
- ⑦ 非武装地帶內의 軍事分界線 이남의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은 UN軍總司令官이, 이북은 北韓軍最高司令官과 中共軍司令員이

共同으로 責任진다. 이를 위한 人員數는 各方司令官이 決定
하되 總數는 언제나 1천명을 超過하지 못한다.

- ⑧ 協定發効후 72時間 以內에 一切의 軍事力, 補給 및 裝備를
非武裝地帶로부터 철거한다.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기
타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指示에 따라 또는 그
監視下에 非武裝地帶內로부터 이를 철거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非武裝地帶의 特殊性은 戰線의 교차상
태에 따라 要塞化된 雙方 陣地사이의 공간으로서 出入의 自由가 극
도로 制限되고 武器의 携帶도 制限되었으며 그 管轄은 軍事停戰委員
會와 雙方軍司令官이 担当하고 있는 點이다. 특히 一切의 軍事施設
이나 危險物을 除去하도록하고 再次設置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즉
完全한 非武裝化, 非軍事化地域으로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設置에 合意를 보기 까지는
많은 論爭이 있었다. 1951年 7月 10日 開城에서 會談이 開始되
던 첫날에 UN軍側 首席代表인 「조이」중장은 會談에서 討議하고차
하는 軍事分界線은 어느 特定한 線과 결부되는 討議를 거절하였다.
즉 政治的이고 經濟的인 事項은 排除하였다.

그런데 共產側은 38線을 南北韓의 境界線으로 하고 韓半島를 統
단하는 6마일 (10 km)의 非武裝地帶를 設置할 것과 短時間內에 모
든 外國軍이 韓國內에서 철수할 것을 主張하였다. 즉 6.25 이전의
상태로 復歸하자는 政治的 저의가 내포된 提議를 하였다. 이것은
UN軍側이 現戰線을 中心으로 하여 設置하자는 主張과 正面으로 對

立되었다.

이 때 UN軍團 「조이」중장이 발표한 非武装地帶에 관한 見解는 그 設置目的과 性格을 分明히 한 것으로 오늘날 非武装地帶問題를 再論함에 있어서도 參考할 價値가 있다. 즉 그는 「國際法에 의하면 休戰協定은 한 임시적인 戰鬪中止라고 特別히 定義되고 있으며 또한 이 戰鬪는 兩者中 한쪽이 事前에 適當한 通告를 함으로써 繼續될 수 있다고 特別히 指摘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想像의인 위도선(38線)에 의하여 非武装地帶가 設置된다면 수 km의 이 地帶를 건너서 언제나 攻擧이 있을 수 있고 항상 增大하여갈 이러한 軍事的 威脅에 우리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防禦할 수 있는 진지를 保有하여야 한다. 우리는 韓國問題의 解決이 確實하게 될 때까지 우리 軍隊의 방어체제를 維持하여야 한다」라고 피력하였다(1951.8.18 미국 공보원 뉴스).

이러한 主張이 관철되어 設置된 非武装地帶에서 休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위반사건과 衝突事件이 끊임없이 없이 계속되어 왔고 그때마다 韓半島에 緊張狀態를 造成해 왔다. 특히 北韓側은 非武装地帶 일대에 이미 전고한 전투진지 즉 要塞地를 무려 200여 곳에 구축하여 놓고 있다(1973.3.1現在). 그렇지만 緩衝地帶의 구실을 어느정도 해왔고 그런 데로 休戰의 確保에 있어서 有用한 手段이 되어 온 것도 事實이다.

非武装地帶衝突事件의 年度別統計는 다음과 같다.

年 度	件 数	年 度	件 数
1955	3	1965	1
1960	1	1966	33
1961	1	1967	564
1962	3	1968	629
1963	2	1969	138

(軍事停戰會談日誌： 유엔軍 停戰委員會 1953. 7 - 1971. 12)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67年과 68年에 최고에 달했던 衝突事件은 1966年 10月부터 1969年 까지의 北韓의 南韓革命戰略의 결과로서 모두 北韓側이 危機를 造成하기 위하여 挑發했던 事件이며 1967年 1月의 海軍 56艦 包擊, 同年 3月의 李穗根의 偽裝脫出, 1968年 1月의 靑瓦台襲擊 未遂, 「푸에블로」号 拉北 11月의 울진, 三陟의 武裝共匪浸透事件 等과 步調를 맞춘 것이었다. 그러다가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의 8.15宣言과 1971年 大韓赤十字社의 會談提議 그리고 1972年의 歷史的인 南北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議를 前後하여 非武裝地帶에서의 衝突事件이 없어졌다. 그 후 최근에 北韓側의 南北會談態도의 硬化와 더불어 또다시 挑發事件이 連發하고 있다. 이러한 相關關係는 非武裝地帶가 休戰確保의 機能을 어느정도 해오면서도 一민반히 一軍事的, 政治的 目的에 利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現在の 機能과 役割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平和利用을 위한 共同開發의 必要性

休戰協定과 非武装地帶에 의한 完全한 南北의 차단으로 同族相爭의 비극은 일단 停止시킬 수 있었다. 完全한 解決이 아니라 一旦 停止에 不過하지만 그것만으로도 破壞와 殺戮의 戰爭狀態에 比하면 平和에의 一大巨步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戰爭도 아니고 平和도 아닌 文字 그대로의 休戰狀態가 아무런 變化나 進展도 없이 1, 2年도 아니고 20年씩 계속된 事實과 北韓의 单独戰爭準備와 韓國의 總力安保態勢에 의하여 야기된 超緊張狀態가 가져오는 國內的, 國際的 問題의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分断對立이 社會 各 分野에서 病的狀態를 낳게 한다는 것과 統一의 可能性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超緊張狀態가 長期間 繼續될 때 自然人은 癡狂하거나 疾病으로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大人間集團의 生理와 構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自然人 個人은 짧은 期間으로 癡狂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短時日內에 治癒될 수도 있으며 不幸하게 死亡하더라도 그 個人의 不幸에 그칠 수 있지만 한 民族은 죽을 수 없으며 永遠한 것이고 그러기에 疾病과 悲劇의 負債는 그만큼 오래도록 고질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南北間의 相克的 對立關係에서 招來되는 冷戰體制의 부산물은 各方面에서 나타난다. 特히 單一民族의 共同意識을 破壞하고 서로 反目 憎惡하며 相反된 意識構造와 生活體制로 치달리게 함으로써 同一性을 喪失하게 한다. 極端的인 共產主義에 대한 極端的인 反共主義

를 낳게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教育과 相對方 것에 대한 無條件的 禁止는 文化發展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소인 편협한 排他性和 思考의 硬直性을 가져온다. 또한 鎖國的 廢鎖社會를 形成시킴으로써 國際情勢에 어둡게 하고 權威的 劃一社會를 낳게 함으로써 發展과 活力의 母體가 되는 多樣性和 變化에 能動的으로 適應할 수 있는 主体性·個性을 喪失시킨다.

이러한 根本的인 民族問題, 意識構造問題, 社會構造問題에 있어서의 부작용이외에도 現實生活關係에 있어서의 安定喪失과 短見的 行態는 막대한 軍事費負擔과 더불어 經濟發展과 国力養成 및 文化創造에 해기를 박고 있다.

國際적으로 強大國들이 고조된 긴장에서 유발될 戰爭에 介入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分斷된 현상을 固定化시키려 하고 결국 統一의 可能性은 危機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現在 우리民族에게 가장 必要한 것은 이러한 病的要素와 危機의 온상이 되고 있는 緊張狀態만이라도 一次的으로 打開하는 것이다. 즉 緊張緩和다. 이러한 意味에서 統一은 完全한 緊張緩和狀態라고 할 수 있고 점차적인 緊張緩和는 統一에 接近하는 필수적인 단계요 方法이다.

이런 次元에서 韓國이 主導한 平壤을 상대로한 南北對話의 始作과 7.4 共同聲明이 커다란 意義를 지닌다.

그리고 同一한 요청에서 非武裝地帶로 하여금 一次的인 役割 즉 休戰維持의 機能에서 보다 積極的인 緊張緩和와 統合促進의 機能을

할 수 있도록 그 役割을 變化시킬 必要가 있다. 熱戰의 遺物이요 冷戰의 像徵이던 이 地域으로 하여금 더이상 民族을 分斷시키고 緊張을 造成시키는 地域으로서의 役割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現在狀態의 變更이 오하려 위험할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볼 수 있지만 現在 철저한 非武裝化가 實現되지도 못했고 위반사태가 속출해 왔음에 비추어 不過 4 km의 空間이 武力行使의 可能性을 排除해 온 唯一한 철벽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兩側境界線이 要塞化되었다 할지라도 現代 兵器의 發達과 戰術의 概念으로 보아 非武裝地帶가 담당하는 一線防衛의 役割은 극히 限定的이 아닐 수 없다. 時代 錯誤的이고 民族에 대한 犯罪行爲인 武力行使의 可能性은 보다 높은 次元에서 抑制되어야 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심지어 偶發的이라고 하는 衝突事件마저도 政治的 要因에 의하여 發生 增加되고 減少되거나 전혀 없어질 수 있음을 그간 20年동안에 잘 보아 왔다.

平壤에서의 南北調節委員會會談에서 北韓側이 6.25의 責任을 전가시키는 筈을 하고 外軍撤収. 언커크해체. 軍隊減縮 등을 先決條件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그동안 조용했던 非武裝地帶에서도 연이어 挑發事件을 일으킴으로써 야기시킨 南北對話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을 主張할 必要가 있다. 이로써 韓國의 平和統一努力을 對内外에 선포하는 役割도 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統一의 可能性을 確保하게 될 것이다.

3. 期待되는 効果

非武装地帯의 開發 利用이 가져올 南北關係에 對한 効果는 자못 클 것이다.

그것은 分斷 四半世紀만에 시도된 南北接觸과 統合過程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休戰後 20年 동안 南北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일이며 여기에서 부터 各方面의 統合努力은 보다 具體的이고 現實的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장 重要한 것은

첫째, 統合過程으로 보아서는 敵對關係에서 對話關係로 들어선 南北關係를 다시 交流・協助關係로 發展시킬 것이며 나아가 融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國際的으로는 韓民族의 單一不可分性和 統一意志 그리고 武力行使拋棄를 行動으로 表示하는 것이기 때문에 周邊強大國들의 分斷의 現象 固定化傾向을 저지하고 統一의 可能性을 確保하는 役割을 할 것이다.

셋째, 民族史的으로는 分斷과 斷絶로 인한 民族의 비극을 감소시킬 수 있고 異質化를 막고 共同意識을 높임으로써 民族의 單一性을 確保함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병적의식구조도 점차 치유될 것이다.

넷째, 軍事的 效果로서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에 커다란 役割을 할 것이다. 要塞化된 戰線은 結果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요한 緊張造成의 原因이 되었던 武力衝突과 침투・도발의 기회

는 차차 감소되고 武力統一의 기대와 가능성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經濟的 效果로서는 放置된 광활한 国土를 開發 利用할 수 있게 되고 外國의 觀光客과 資本을 유치할 수 있으며 軍事費를 절감하고 남북의 經濟交流를 擴大해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結果的으로 이러한 限定된 地域과 課題를 中心으로 共同事業을 하고 相互協助함으로써 南北의 信賴關係를 높이고 이러한 事業은 波及 效果를 가져와 統合過程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役割을 할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특히 그렇게 될 것이다. 즉 7.4 共同聲明과 그후의 會談에서 도달한 合意事項을 非武裝地帶의 開發과 利用에서 하나 하나 具體的으로 實踐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서로 相對方에 대해서와 全民族에 대해서 信賴를 받도록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또한 統一問題가 몇몇 高位指導者間에서만 論議되지 않고 많은 住民이 生活속에서 參與하게 됨으로써 統一에의 추진력은 그만큼 增大될 것이다. 그리고 이 地域의 開發 利用은 南北交流地帶의 設置가 되기 때문에 諸般 交流를 촉진시키게 되고 國際的으로도 研究 開發 利用에 參與시킴으로써 國內外的으로 再統一에의 條件을 造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硬化된 境界線을 軟化시키는 것이 當事者間의 緊張解消와 統合過程의 必要不可避한 段階임을 수많은 歷史的 事例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것은 武力對峙地帶를 平和地帶, 交流地帶로 다시 融合地帶로 順次

的으로 造成해 가는것을 意味하며 非武装地帶의 共同開發과 平和的
利用은 바로 이러한 段階를 能動的으로 밟아가는 표본이 아닐
수 없다.

Ⅲ. 非武装地帶開發과 南北의 利害關係

1. 南北統合의 妨害要因

非武装地帶의 共同開發과 平和利用에 있어서 南北의 利害關係가 調整되지 않는 限 그 實現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南北의 利害關係가 相反될 可能性은 바로 南北統合의 妨害要因에서 기인한 것이다. 現在 南北韓은 分斷의 長期化로 理念, 思考, 價值觀, 社會體制 등 여러가지 面에서 너무나 差異가 많다. 이러한 異質의인 要素가 統合을 妨害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 根源의이고 重要的 妨害要因은 이러한 差異를 發生시키고 固定시키고 永続化시킬 수 있는 政治權力 體制가 南北에 各各 實在하고 있다는 事實과 또한 南北은 各各 國際的으로 相互對立되는 力에 속해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國內的, 國際的 妨害要因이 相互作用하여 南北의 異質化를 촉진하고 統合 接觸을 妨害하고 있다.

먼저 國內的 要因부터 考察하면, 分斷國의 各 單位의 政治體制를 이끌고 있는 리더쉽集團이 融合의 統一을 認定하고 그들이 여기에 參與할 수 있는 條件은 그들의 政治的 리더쉽의 地位를 留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機能的 統合에 있어서도 接觸의 進展에 따라 리더쉽競爭은 한층 심해질 것이고 統合過程의 進行에 따라 어느 一方의 리더쉽 弱화가 招來될 때에는 接觸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거나 斷絶하고 리더쉽 強化를 위하여 緊張을 조성하거나 異質性을 固定 또는 增大시킬 可能性이 있다. 最近 北韓側이 南北會談을 停頓시키고 對南挑發과 非難을 始作한 것도 이러한 觀點에서 考察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해서 발생한 상호불신은 상호간의 차이보다도 더큰 妨害要因이 된다. 分斷國의 平和의 再統一은 分斷部分間의 國家的 能力의 差異가 근소할 때 오히려 機能的 統合이 촉진된다는 理論的 根拠도 이러한 事實에서 도출될 수 있다.

다음에 南北이 軍事的 同盟을 主軸으로하는 불력에 各各 속해있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利害關係의 對立도 重要的 問題이다. 特히 非武装地帶는 純全히 軍事的 目的에서 設置되었고 그 原因인 韓國戰爭이 전형적인 冷戰體制下的 不列國의 戰爭이었으며 非武装地帶를 가운데 두고 그간 20年동안 내치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불력間的 冷戰體制가 계속되어 온 까닭이기 때문에 非武装地帶의 平和的 利用에 관한 利害關係는 다만 南北韓만에 局限될 수는 없다.

南北對話가 이 정도로 進展된 것도 冷戰體制가 和解體制로 變質되어 가고 불력을 中心으로 한 二元體制가 多元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國際體制와 勢力均衡의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冷戰體制下에 증강된 南北의 軍事力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불력에 의한 同盟軍의 保障에 회의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軍事的 利害關係에 대해서는 國內外的으로 극히 민감하고 미묘하다.

물론 再統一에의 機會는 南北韓과 各各 그 뒤에서 冷戰의 뒷받침이 되어온 불력 諸國과의 共同關係가 弱化됨에 따라 增大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傾向은 美·中共, 日·中共間의 關係改善과 中·소間의 紛爭으로 급속히 심화될 可能性이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최근에 論議되는 韓國과 中共, 韓國과 소련과의 關係改善과 北韓과 日本, 北韓과 美國과의 關係改善이 어느정도 이루어짐으로써 촉진될 것이다.

이와같은 統一을 방해하는 國內的 國際的 要因은 지금까지의 南北 接觸에서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났다. 一応 非政治的이고 非國際的인 性格을 가진 人道的 問題인 赤十字會談이 節次問題하나를 가지고 2年동안 具體的 進前을 보지 못한 事實이라든지 國內外的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7.4 共同聲明과 이에 의한 南北調節委會談에서 概念問題와 先決問題로 意見差異가 좁혀지지 않은것 등은 모두 이러한 妨害要因이 아직 상존할 뿐 아니라 統合의 促進要因이 共同利益이라거나 國內外的 壓力 등은 성숙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非武裝地帶의 開發과 利用에 관해서도 이러한 妨害要因의 作用은 능히 予想할 수 있다. 그렇다고 突現可能性이 거의 없다고 볼 必要는 없다. 南北의 統一政策과 戰略이 다르고 每事에 利害가 相反되고 있기는 하지만 會談이 일리기전의 상황에 비하여 볼 때에는 모든 여건이 크게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변 四大國이 한결같이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相互交流協力을 원하는 方向으로 利害關係를 같이하는것 같고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하여 모든면에서 뒤떨어질 可能性이 있는 北韓이 現在의 態度를 바꿀 可能性도 없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의 會談에서 많은 經驗을 相互間에 얻었다는 것도 重要한 일이다. 따라서 非武裝地帶問題가 오히려 다른 問題보다도

예상 이상으로 순조롭게 解決될 可能性이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다른 問題에도 큰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고 非武装地帶는 南北交流 地域 내지 融合地帶가 될 것이다.

2. 南北의 利害得失과 戰略의 予想

非武装地帶의 共同開發 및 平和的 利用의 可能性을 보다 具體的으로 모색하고 어떠한 問題가 제기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南北의 이에 관한 利害得失과 戰略을 予想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南北韓의 各 分野의 實情과 그 結果 또는 反影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까지의 基本的인 統一政策에 비추어 봄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먼저 北韓의 統一政策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武力統一과 平和統一을 併存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北韓이 1950年代 이후의 軍備強化와 重工業建設로 軍事力分野와 經濟分野에 있어서 南韓에 비하여 優勢한 位置에 있다는 判斷아래서 그리고 1960年代初의 韓國의 政治的 不安定을 최대로 利用한다는 戰略에 立脚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 「北朝鮮民主基地」 「四大軍事路線」 등에서 分明하게 나타나는 武力 또는 전복에 의한 赤化統一의 基本原則을 지금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후퇴시키지 않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自主·民主·平和統一의 口號아래 外軍撤収後의 南北協商에 의한 統一, 中立國監視下의 自由選舉에 의한 統一, 南北聯邦制 등을 主張하면서 韓國에 비하여 뒤떨어졌음을 自認하는 國際的 地位의 飛躍에

全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김일성 体制下的 北韓의 政治權力構造 내지 社會, 經濟構造와 그 勢力關係 및 實情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戰略적으로는 「狀況에 대한 客觀的 評價와 適當할 때의 暴力使用, 그리고 目的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의 協商이라는 共產主義者의 戰略을 形成하는 一般原則的인 骨格(framework)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北韓의 統一政策은 「제임스 빈센트·영」교수도 그의 「北韓의 統一戰略解剖」에서 指摘하고 있다. 즉, 그는 北韓이 國內外情勢에 대한 全般的이고 客觀的인 分析에 立脚하고 있으며 成功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어떠한 手段도 使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反應的이고 伸縮的이어서 그때 그때의 國內外事情에 따라 戰略의 變化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北韓의 統一政策에 指針이 되는 根源으로서의 世界, 國際情勢, 둘째, 北韓內部的 事件 特히 共產黨과 北韓과의 關係에 影響을 주는 諸事件, 세째, 大韓民國內部에서 일어나는 여러 事態의 세가지를 들고 世界의 大韓民國 內部에서 일어나는 事態가 一次的으로 重要하며 1970年代에 協商에 의한 統一政策을 들고 나온것도 大韓民國의 事態에 따른 變化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北韓政策에 대한 南韓의 影響力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北韓의 統一政策, 戰略의 性格 및 이에 대한 影響力 關係를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과 關聯시키면 그들의 利害得失과 戰略을 다음과 같이 予想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政治的 觀点에서는 現在 南韓에 뒤떨어지고 있는 國際的 地位의 差異를 없애고 對等한 認定을 받으려는 欲求를 어느정도 充足할 可能性이 있다는 利得이 予想된다. 적어도 그러한 北韓의 努力과 主張을 뒷받침하는 根拠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效果를 最大로 達成시키려는 方向에서 非武裝地帶의 開發에 관한 戰略을 세울 것이다.

특히 對UN 關係에서 6.25 事變에 關聯된 누명을 벗고 UN軍 撤收와 언커크 解体主張의 根拠로 삼거나 이를 先次條件으로 提示할 것이다. 休戰會談을 南北間의 平和條約으로 代置할 것을 主張한 1972年 1月 10日의 金日成 발언은 바로 이러한 意圖로 생각된다. 또한 對南戰略面에서도 韓國의 反共法, 保安法의 폐지를 條件으로 내세울 可能性이 있고 선전과 침투의 창구로 사용할 期待를 가질 것이다.

反面에 全体主義的인 廢鎖社會를 어느 정도 開放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지금까지 北韓住民을 外部世界와 斷切시키고 南韓의 生活相과 自由世界에 대하여 의욕된 선전을 해오던 것이 폭로되고 自由의 물결이 침투할 可能性이 증대된다는 것은 損失로 豫상된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로 防止할 수 있는 方向에서 戰略을 세울 것이다.

둘째, 軍事的 觀点에서는 北韓이 계속하여 主張하고 있는 外軍撤收와 軍備縮小의 主張 根拠로 삼을 수 있으리라는 利得이 予想되고 이로써 韓國의 防衛力 增強을 막으려 할 것이다. 또한 對南工作要員의 南派를 보다 容易하게 할 可能性을 모색할 것이다.

反面에 武力統一方針에는 큰 制約을 받을 수 있으며 再새화한 戰

線을 노출 또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고 政策的 手段으로 빈번히 使用하던 緊張狀態 危機의 造成 등이 困難해 진다는 損失이 予想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軍事体制強化에서 오는 反作用도 内部問題에서 負擔과 損失로 나타날 것이다.

세째, 經濟的 觀點에서는 유희자원의 開發·利用과 軍事費의 감소 觀光事業 共同魚勞 등 共通的인 利得이 외에도 南北의 經濟交流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現在의 北韓經濟의 딜렘마로 보아 北韓側에 더욱 有益할 것 같으며 특히 日本을 비롯한 自由世界의 技術과 資本을 끌어들이 수 있는 條件이 造成될 수 있다는 점에서 利得이 予想된다.

反面에 北韓体制를 維持시키는 經濟体制에 대한 도전을 받고 住民의 회의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南韓을 비롯한 自由世界의 우수한 商品의 展示場이 되고 과거 經濟적으로 後見的 支援을 하였던 선전적 제안의 허구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는 損失일 것이다.

네째, 社會·文化的 側面에서도 南韓의 反共思想을 弱화시키고 社會的 격차에서 오는 모순을 극대화 시킨다거나 多元的 社會의 弱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利得이 예상된다.

反面에 金日成 유일사상하의 허구적 一元的 構造의 취약성을 나타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야에서 相互交叉되는 得失關係가 成立될 可能性이 있고 이에 따라 戰略이 세워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南韓의 統一政策과 이에 비추어 본 非武装地帶開發의 利害關係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즉 統一政策을 武力統一을 否認하고 平和統一을 指向하며 그 接近方法으로서는 먼저 国力을 增進시켜 武力統一의 企圖를 저지하고 緊張을 緩和시킨후 各 分野의 優位的 地位를 발판으로 統一을 모색한다는 先建設 後統一의 前提위에서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対応하고 北韓에 대해서는 段階的으로 對話와 接觸을 增大시킴으로써 北韓의 体制變化를 유도하여 自由民主統一에 接近해 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現在 우위에 있는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계속 유지강화할 수 있고 國防力強化와 經濟成長面에서도 時間의 경과에 比例하여 屢번 優勢化될 것이 確實하다는 自信에 立脚한 것이며 体制整備에 의한 弱點補強과 自由民主主義의 우수성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非武装地帶의 開發 利用에 대한 利得으로서는 무엇보다도 政治的 軍事的으로 武力使用을 抑制하고 緊張을 緩和시킴으로써 北韓의 暴力的 對南工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南北의 機能的인 接觸과 交流 協助를 增大시킴으로써 北韓社會의 開放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것, 韓國의 統一政策에 대한 보다 強力한 國際的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것, 유휴지개발, 해외 투자유치, 공산권과 자유세계간의 교역증개 등 경제적 利得 등이 予想된다. 또한 統一을 향한 全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진작 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反面에 北韓의 短見的인 利得에 대해서는 相對的으로 損失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分析한 結果에서도 分明해졌듯이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과 平和的 利用은 南北 어느 한편만의 戰略的 利益이 있거나 損害가 되는 問題라기 보다는 全民族的 次元에서 얻은 바가 많고 統一에 接近하는 한 段階라는 의미에서 重要的 意義를 지닌다는 事實이 強調되어야 한다.

3. 利害調整과 与件造成

이상에서는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에 대한 双方의 政策決定에 作用할 重要的 變數인 国内外情勢와 南北의 政策 및 戰略에 비추어 본 利害關係를 고찰하였다. 다음에는 이들 變數를 여하히 통제조정함으로써 共同開發과 平和利用을 實現시킬 수 있겠는가를 간단히 分析해 본다.

爲政者가 重要視하는 問題는 接觸이나 交流를 통해서 일어나는 結果的인 利害得失이기 때문에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過程中에서 發生할 利害關係는 双方 共히 어느정도 均衡이 維持되어야 한다. 한 分野에서 損失이 있다면 他分野에서 반드시 補償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接觸 自体가 中斷되고 開發과 利用이 不可能해질 뿐만 아니라 統合過程의 한 段階에 不過한 이 問題로 인하여 앞으로의 進展을 가로막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南北韓이 各己 追求하는 統一의 最終目標 또는 中間目標의 達成에 非武裝地帶의 開發利用이 기여할 수 있다는 展望이 실때에 비로소 合意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接觸過程에서 双方의 利害得失이 특별히 뚜렷하게 對立되지 않는 課題부터 選擇하여야 하고 또 일단 課題가 選定된 뒤에도 그 遂行過程에서 가장 쉽게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는 分野와 共同業務부터 順次的으로 進行시켜야 한다는 것이 不可避하다.

이런 問題에 관하여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은 相互接觸에 있어서 다음 몇가지를 重要視하여 特히 強調한다.

첫째, 接觸 統合의 課題나 領域은 政治的인 것과 非政治的인 것으로 区分할 수 있으며 後者が 前者보다 相互間의 協力이 더 容易하기 때문에 우선 非政治的인 것을 挾해야 한다.

둘째 業務는 처음에는 限界点이 明確하고 集約的이어야 할뿐더러 經濟的으로 重巽한 業務로서 波及效果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 適合하다. 特히 社会福祉를 위한 業務 또는 그와 關係되는 것이 좋다.

셋째, 接觸段階에 있어서나 交流段階에 있어서 關係되는 國民의 動員數가 많을 수록 좋다. 關係者들이 統合機構와 業務에 忠誠心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넷째, 統合 接觸이 정돈상태에 빠지지 않고 더욱 擴大되고 成功하려면 參與하고 있는 政治指導者들의 特定된 期待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 双方의 期待가 그 結果나 接觸方法에 있어서 完全히 一致하지 않더라도 双方의 目的이 想互補完的이며 포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理論的 根柢에 비추어 보면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과 平和的 利用은 그것이 여러 分野의 問題를 內包하고 있지만 共同的 利益을 가져올 수 있는 事業이 되고 또 社会文化交流와 經濟的 協力を

위한 事業이기도 하기 때문에 現時點에서 南北接觸의 領域 및 課題로서 適合하며 實現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얻은 經驗과 지식이 다른 分野로 옮겨 이용될 수 있는 소위 파급효과 즉, 傳播機能이 큰 課題이다. 그렇지만 非武裝地帶問題에도 가장 政治的인 것, 紛爭的인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非武裝地帶의 開發과 利用에 着手함에 있어서도 政治的인 것에서 가장 無關한 對象을 선정하고 또 紛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段階的으로 선택할 것이 要望된다. 이를테면 地域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政治的 軍事的 利害關係가 크지 않은 곳을 선정하고 반대로 교통, 통신 및 경제적 이익이 큰 곳을 선정하며 利用方案에 있어서도 學問的, 文化的, 經濟的 利用에 局限되도록 事業을 選擇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開發 및 利用方案의 章에서 論할가 한다.

다만 機能主義 自体에 대하여 批判的인 學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政治的 問題와 經濟的, 社會的 問題를 分離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分離할 수 있다 하더라도 政治的 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우선 福祉問題를 뒤로 미루고 힘을 쓰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 밖에도 批判的 見解는 協助精神을 造成하고 傳播機能을 갖는데 悲觀的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機能的 進展은 危機가 없는 限度內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또 社會體制의 差異와 政治指導者들의 價值體系의 差異는 機能的 統合을 저해하는 要素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非武裝地帶問題에 있어서도 이러한 事項이 利害關係의 調整

과 与件造成을 어렵게 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非武装地帶의 開發利用에 있어서는 双方이 各各 損失보다는 利得이 훨씬 클 것으로 予想되고 南北住民의 統一에 대한 간절한 念願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政治指導者들이 宣傳과 象徴의 對象으로 삼을 充分한 可能性이 있고 따라서 戰略과 呼訴力의 폭이 넓은 관계로 肯定的인 側面이 훨씬 強하다.

다음으로 對外關係 즉 國際關係를 中心으로 共同開發과 平和的 利用을 可能하게 할 与件的 造成을 考察해 본다. 南北의 統合에 있어서는 國際的인 妨害要因이 특히 重要하다는 事實은 이미 지적 되었다. 非武装地帶을 設置하게 된 韓國戰爭休戰協定の 当事者가 一方은 UN이고 他方은 北韓軍과 中共軍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韓半島의 再統一에는 美, 日, 中, 소 四大大國이 韓國의 再統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否定的인 政策도 肯定的인 政策도 取할 수 있다.

한마디로 四大大國의 韓半島에 대한 利害關係는 現狀維持에서 調整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武力衝突과 어느 一方만에 의한 統一로 인한 勢力變化를 願하지 않는것 같다.

따라서 武力衝突의 可能性을 抑制하는데 초점을 두는 非武装地帶의 開發 利用과 南北間의 緊張解消. 關係改善은 그들의 利害關係에 相反되지 않고 오히려 要望되는 事態인 可能性이 많다.

따라서 現在의 韓國의 對中共. 對 소련關係와 北韓의 對日本. 對美關係는 더욱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非武装地帶의 開發利用으로 그러한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對美·對日關係를 확고히 維持하면서 조심스럽게 中共과 소련에 대한 關係를 改善해 나가는 것이 韓國外交의 方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統一推進 非武装地帶平和利用에 대한 國際的 與件을 有利한 方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國內的 與件 때문에 協商이나 武力에 의한 全面的 統一이 당장에 어렵고 따라서 分斷과 統一의 中間的 狀況에서 점진적으로 統合에 接近시켜 나가는 多元的 統合過程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問題가 있다. 즉 統合의 程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南北間의 相互作用을 增大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韓의 關係改善과 어떤 狀態의 相互認定이 필요하다는 理論도 제기되는데 이것이 두개의 國家를 認定하고 결국 分斷을 永久化시키는 結果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와 어떤 선에서 限界지어야 하며 그것을 막을 法的 制度的 장치는 무엇이나이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國際的으로는 分斷의 現象을 고정시키려는 국제적 압력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南北對話를 계기로 北歐諸國을 비롯하여 韓國과 外交關係를 수립한 나라에서도 北韓을 同時에 承認하고 外交關係를 맺는 事態라든지 UN에의 韓國問題上程件도 이러한 問題의 긴급성과 곤란성을 말해주고 있다.

非武装地帶의 用途變更은 南北關係의 新設定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問題에 대한 解決이 共同開發과 平和利用을 가능하게 할

또 하나의 重要한 与件造成이 되지 않을 수 없다.

休戰協定을 平和的으로 變更시키자는 김일성의 主張과 같은 것은 직접 政府水準에서의 問題解決을 말하는 것으로서 國際法上 두개의 主權國家를 인정하는 法的根拠를 부여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非政府機構를 통한 共同開發 및 平和利用의 推進과 非政治分野의 問題를 対象으로 限定시킴으로써 그리고 政府는 이에 대한 間接的 支援만을 함으로써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非武装地帯平和利用에 관한 諸主張

1. 平和利用主張의 動機와 類型

非武装地帯의 平和利用에 대한 論議가 始作된 것도 다른 南北 接觸問題와 마찬가지로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의 宣言에서 비롯된다.

1948年 金九, 金奎植先生 등의 南北協商이 失敗하고 6.25事變과 그 후의 武力統一論이 支配하던 時代에는 南北間의 여하한 接觸方案도 論議의 餘지가 없었다. 물론 1960年 4.19 이후에 北進統一論이 公武적으로 撤回되고 民主黨政府가 수립되면서 갖가지 統一方案이 論議되고 여기에서는 南北協商, 中立化統一을 소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非武装地帯도 그 일환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 때의 統一論議는 政策으로 反映될 수 있는 狀況에 있지 못했으며 韓國의 脆弱성을 北韓에 노출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았다. 즉, 政治的 混亂으로 統一政策을 強力히 밀고 나갈 수 있는 準備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산만한 論議는 5.16革命과 反共態勢強化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후 1963年 南北間의 올림픽單一팀 構成을 둘러싸고 잠간 南北 接觸이 시도된 일도 있었지만 「쿠바」危機 이후의 東西冷戰體制의 硬直化와 1965年 이후의 北韓의 暴力統一政策은 平和的 接觸의 可能性을 막아왔다. 때때로 韓國에서 緊張緩和와 民族的 悲劇의 減少를 위해서 南北面會所設置 등을 주장하는 인사도 있었지만 그런 論議가

성숙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繼統的인 經濟成長과 「닉슨독트린」의 影響을 考慮한 것으로 생각되는 朴大統領의 8.15宣言이 있는 후 赤十字會談의 開催로 南北接觸이 開始되면서부터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대한 論議로 本格的으로 抬頭되기 始作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대한 主張과 論議는 大部分이 아직 發想의 段階 또는 政治的 主張에 머무르고 있는 實情이고 다음에 좀더 상세히 分析할 몇개의 提案이나 方案을 제외하고는 諸般條件을 고려한 具體的 方案으로 성안되지 않은 狀態이다.

그러나 어떠한 政策이나 方案일지라도 처음에는 모두 特定한 必要라든지 直觀的 發想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具體案으로 提示되지 못한 主張이나 發案들을 그 動機에 따라서 또는 目的과 內容에 따라서 그 類型을 分類하고 檢討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主張이 훌륭한 政策案으로 성숙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論議되어온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대한 主張들을 그 動機와 內容에 따라 大體로 다음과 같이 크게 分類할 수 있다.

첫째, 1967年과 1968年에 절정에 달했던 北韓의 武力挑發이 主로 非武裝地帶에서 또는 非武裝地帶를 通過하여 行하여진 事實에 根拠하여 軍事的인 觀點 즉 安保上의 目的에서, 非武裝地帶를 武力挑發 또는 浸透가 不可能한 地域으로 만들자는 主張이다. 이것은 本來 休戰을 維持하기 위하여 設定된 非武裝地帶의 本質的인 性格을 變化

시키자는 것보다는 더욱 確固하게 그 機能을 하게 하자는 主張이다. 따라서 이런 主張들은 例外없이 非武装地帶의 철저한 非武装化 또는 非武装地帶境界線으로부터의 双方 軍隊의 後退를 그 先行條件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이 主된 目的이다. 그렇기 때문에 平和利用의 內容도 非武装地帶內에 UN大學을 設立한다든가 孤兒院과 養老院을 넣는다거나 國際機構를 設置하거나 國際的 行事を 한다는 등 주로 「人質」로서의 價值가 많은 施設이나 人員을 넣자는 것이다. 만약에 武力攻撃으로 이것이 짓밟히게 되는 때에는 人道的 見地에서 世界의 公분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目的에서 한걸음 나아가 그 利用에 있어서는 國際적으로 광범위하게 參加시키고 또는 國際監視나 管理에 맞기자고도 한다.

둘째, 同一民族이 長期間의 分斷으로 異質化되어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要請에 根拠하여 民族史的인 觀點 즉 精神的 文化的 目的에서 非武装地帶를 南北住民의 接觸 交流地로 만들자는 主張이다.

이것은 非武装地帶가 戰爭防止를 위한 것이라면 그 機能에만 限定시키고 직접관련이 없는 民間인의 往來와 交流까지 차단하는 作用은 하게하지 말자는 主張이다. 따라서 이런 主張들은 現實적으로 어려운 問題인 軍事的인 問題를 先行條件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되도록이면 軍事的인 것, 政治的인 것과 無關한 것만을 對象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平和利用의 內容도 南北面會所를 設置한다든지 體育施設을 하고 南北體育大會를 開催한다는등 주로 南北民族의 교류에 필요한 施設과 行事を 하자는 것이다.

세계, 광활한 土地와 自然資源이 버려진 채로 있고 學術的으로 貴重한 文化財와 生物이 放置되어 있다는 事實에 根拠하여 經濟的, 學術的인 觀點 즉 實利的 學問的 目的에서 非武裝地帶를 開發利用하고 調査 保護하자는 主張이다. 이것은 南韓의 경우만 하더라도 非武裝地帶에서 다시 南下하여 民間人出入 統制線이 設置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않아도 不足한 경지의 상당부분이 유휴지로 남아있어 그 利用을 主張하다가 결국 根本的인 問題解決은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는 東海岸과 西海岸의 漁撈沮止線과 關聯하여 좋은 漁場이 그 이북에 있고 따라서 漁船拉北問題가 發生하고 더욱 절실해졌다. 또한 20여年間 人間의 발자취가 미치지 못한 非武裝地帶의 學術調査 및 自然保護의 必要性和 國際的인 特異한 觀光地로 될 수 있다는데 착안한 主張이다. 따라서 이런 主張들은 순수한 學問的, 實際的 次元에서 安全한 調査 保護와 自然의 開發 耕作 그리고 漁撈行爲나 觀光行爲가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平和利用의 內容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分類는 모든 主張이나 利用方案이 그와 같이 特定한 하나의 目的이나 內容에 局限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大部分의 主張들은 이러한 目的과 內容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편의상 主된 動機別로 內容別로 나누었을 뿐이다.

이러한 諸般主張에 대한 可能性과 妥當性의 分析 그리고 미칠 效果와 影響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具體的 提案과 方案을 分析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綜合的인 方案을 提示하면서 論하기로 한다.

2. 韓國政府의 提案

1970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은 光復節記念慶祝辭에서 北韓이 武力赤化統一을 完全히 拋棄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証하면 南北韓의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現實的 方案을 提示하겠다고 宣言하였다. 그리고 1971年 3月에도 人工的障壁의 除去와 南北韓 共同鐵道構築勞力을 提案하였다. 즉, 南北接觸의 先決條件으로 北韓의 武力行使拋棄의 實証을 要求했다.

다음에 1972年 2月 12日 金溶植外務部長官은 平和統一을 위한 4個 先行條件을 提示하면서 그 第1條件으로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을 提議하였다. 이것은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대한 政府의 最初의 公式態度表明이며 앞서 朴大統領이 要求한 武力行使拋棄實証의 한 具體的 方法을 提示한 것임과 同時에 人爲的 障壁除去의 한 現實的 方案을 提示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에 앞서 1972年 1月 10日 北韓의 金日成은 日本 「요미우리」新聞社 記者와의 會見에서 南北統一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 ① 軍事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자
- ② 美軍撤収를 條件으로 南北의 軍備를 減縮하자.
- ③ 政黨 社會團體들 간의 雙務的 多務的 會談을 하자는 것이다.

金外務長官의 記者會見內容은 이에 대한 韓國의 立場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平和統一을 위한 4個先行條件은 다음과 같다.

- ①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을 提議
- ② 武裝간첩 南派의 中止를 要求
- ③ 拉北된 K A L機의 승무원 및 機體의 송환을 要求
- ④ 全國土의 要塞化 등 武力赤化統一의 野欲을 拋棄할 것이다.

그리고 1972年 3月 20日 朴大統領은 陸軍士官學校 卒業式의 儀式 中에서 다시 北韓에 대하여 非武裝地帶의 軍事障地를 撤去하도록 促求하였다. 北韓側은 이러한 韓國政府의 主張에 대하여 하나의 宣傳에 不適當하다고 목살했으며 여전히 종전의 主張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韓國政府提案의 性格은 武力行使拋棄의 實證으로서 그리고 效果的인 抑制策으로서 非武裝地帶를 非軍事化하자는 것이며 南北接觸의 先行段階로 보는 것이다.

3. 軍事停戰委에서의 「로저스」提案

1971年 6月 12日 軍事停戰委員會 第316次 本會議에서 UN軍側 首席代表인 「로저스」(Feliz H. Rogers)美空軍少將은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을 提案하였다. 그리고 또 그는 同年 7月 5日 UN軍側이 南北間의 接觸을 유도하기 위해서 軍事停戰委員會의 首席代表를 韓國軍으로 交替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發言함으로써 적지 않은 물의와 問題點을 提起시켰다.

1年間 首席代表職을 맡아온 그는 戰爭도 아니고 平和도 아닌 南北間의 기묘한 狀態를 和解와 平和로 이끄는 데는 非武裝地帶를 民間

人에게 開放함으로써 平和的으로 利用하게 하고 UN軍側 首席代表를 韓國軍으로 交替함으로써 그 可能性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平和的 利用에 대한 提案內容은 段階的으로 非武裝地帶內에서 武器나 地雷 그리고 구축한 障地를 除去한 뒤 그 地域을 平和的인 利用에 轉用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軍事物除去의 確認을 위해서는 共同監視小組의 利用을 提案했다. 그는 平和的 利用의 具體的 內容이나 그후의 管理 등에 관해서는 그 이상의 言及이 없었다. 이에 대한 北韓側의 反應은 냉담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提案은 休戰協定이 締結된후 軍事停戰委員會 首席代表로서 처음으로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을 提案했다는 점과 또한 首席代表를 韓國軍으로 交替하자는 筈言도 이와 關聯시켜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的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의 意思는 곧 UN軍의 意思 그리고 美國의 意思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提案에 있어서도 具體的인 利用의 形態에 대한 言及이 없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첫째의 類型 즉, 軍事的 安保的 目的에 立脚한 非武裝地帶의 철저한 非武裝化를 위한 平和利用主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첫째 類型의 平和利用主張은 現在 韓半島에서 가장 要求되는 緊張緩和와 武力攻撃의 抑制를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必要性和 妥當性에도 不拘하고 그것 만으로는 實現可能性이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南北問題에 있어서 가장 難問題로서 다른 모든 問題 즉 政治的인 最終的 妥決이 있어야 비로서 解決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軍事問題를 先行條件 또는 直接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北韓側은 냉담한 反應을 보였다. 北韓側으로 보면 이것만 으로는 얻는 것이 없고 오직 中共이 金門島에 대한 포격을 緊張造成의 手段으로 利用하던 것과 같은 戰略上의 手段만을 喪失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와 關聯하여 調整할 만한 利害關係가 提示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緊張緩和는 어떤 경우에도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있어서 才一次的 意義를 가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目的의 主張이나 方案을 實現性 없다고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目的과의 關聯 하에서 또는 附隨되는 問題나 先決問題의 解決方向의 提示와 同時에 提起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提案된 首席代表의 韓國軍으로의 交替問題는 北韓側의 統一問題에 관한 극단적인 外勢排除 高집을 생각할 때 많은 암시를 준다. 즉 非武裝地帶에 國際監視團을 넣는다거나 國際平和軍을 주둔 시킨다거나 國際管理下에 둔다는 등의 提案이 北韓側의 同意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히 非現實的인 主張일 것이라는 점이다.

4. 國際平和地帶 (IPZ) 案

이 方案은 李永鎬博士가 1971年 10月 嶺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主催 統一問題國際 심포지움에서 그 윤곽을 發表하고 다시 1972年 8月 國土統一院 統一政策資料 1 X를 통하여 發表한 案이다.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대한 最初의 体系的 研究結果로서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먼저 李博士는 『統一이 可能하기 이전에 相當히 긴 經過過程이 필요하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統一基盤造成을 위한 準備的 努力과 統一을 위한 本格的인 努力은 區別되어야 하며 前者는 後者를 앞서야 하고 前者가 成功的으로 이루어진 다음이라야 後者가 生産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合理的인 統一政策의 樹立을 위해서는 統一過程과 統一基盤造成을 위한 經過過程의 明確한 區別이 必要하다면서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方案은 統一을 위한 直接的인 方案이라기 보다는 統一을 위한 準備를 하는 經過的인 方案으로 받아 드려야 한다』고 主張한다. 『統一의 基盤이 造成되기 위한 先決條件은 韓半島事態의 安定化 즉 南北間의 緊張解消와 武力衝突可能性의 抑制』라고 指摘하고 『이런 安定化가 可能하려면 南北間의 關係가 보다 나은 信賴의 바탕위에 서야 하며 보다 폭넓은 對話와 보다 긴밀한 接觸이 必要하다. 짧게 말하면 南北間 關係의 改善없이 安定化를 바랄 수 없다』고 한다.

이어서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은 一方的으로 實踐할 수 있는 性質의 일이 아니고 南北韓 雙方의 合意에 의해서만 可能하다,

따라서 北韓을 적어도 協商相對者로서 認定하는것이 不可避해진다』고 말하면서 『요는 北韓政權에 대한 待遇問題를 現實化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認定은 『北韓政權의 合法性이나 永続性을 意味하지 않는 어떤 形態의 事實性의 認定이 要望된다.

따라서 이런 形態의 認定은 分斷의 永久化를 意味하지 않음은 勿

論이다. 또한 北韓을 하나의 別個國家로서 認定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政權으로서만 認定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北韓政權이 不法적이거나 不合理的한 方法으로나 38線 이북의 領土와 2千萬國民을 實質적으로 統治하고 있다는 事實만 認定하면 된다』고 한다.

非武装地帶의 平和利用을 위한 具體的方案에 대해서는 먼저 『南北間에 또 하나의 戰爭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緊張을 緩和함으로써 相互信賴가 回復되도록 하기 위하여 非武装地帶를 보다 積極的인 平和目的에 利用할 必要가 있다』고 必要性和 目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平和利用의 段階的 實踐方案을 提示한다.

첫째 段階로서 로저스少將의 提案이 받아들여져서 非武装地帶가 名實相符한 非軍事化地域으로 回復되어야 한다.

둘째 段階로서 兩方에서 非武装地帶로 부터 部分的으로 또는 全域에 걸쳐 一定한 地点까지 軍隊를 철수 한다. 段階적으로 實行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같은 撤軍을 위해서는 國際監視團의 活動이 要請될 것이고 한 中立國監視委員會가 活用될 것이다.

세째로 위의 撤軍과 同時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國際平和軍의 非武装地帶導入이다. 平和軍의 機能은 實質的 軍事的인 것보다 오히려 象徴的인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 規模가 반드시 클 必要는 없다.

네째 段階로서 아래의 研究所 내지 施設을 擴張되고 非軍事화된 非武装地帶속에 段階적으로 導入한다는 것이다.

1. 民族文化遺産研究所
2. 國際平和研究所

3. 農林業研究所
4. 漁業研究所
5. 自然生態研究所
6. 國際兒童美術祭를 위한 施設
7. 國際兒童音樂祭를 위한 施設
8. 國際兒童科學祭를 위한 施設
9. 國際兒童體育祭를 위한 施設

이중 가장 처음으로 시도될 수 있는 것으로 常時的 機關이 아닌 國際兒童美術祭등을 常時的인 運營을 要求하는 것으로는 民族文化遺産 研究所와 自然生態研究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이 成功的으로 끝나면 段階的으로 더욱 積極的인 案을 試圖하고 어떤 段階에 가서는 非武裝地帶안에 統一村을 만들어 統一韓國의 實驗을 할 것을 提案한다. 즉 『이와같은 統一村은 『才三의 韓國』을 이룩할 것이며 그 住民들은 南北한 어느쪽의 支配도 받지 않을 것이며 어떤 自治的인 政治體制 밑에서 살게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非武裝地帶의 觀光化도 아울러 提案하고 있다. 이와같은 事業에의 參加範圍는 南北韓에 制限하지 않고 國際的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人質』 효과를 높이고 國際社會의 關心과 熱意를 불러 일으키며 精神的 物質的 支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理由다.

그리고 管理는 南北韓의 合意에 의해서 委任된 範圍內에서 独自の 決定權을 가진 南北韓共同委員會를 構成하여 말기고 南北韓의 異見調整과 仲裁를 위하여 中立國監視團과 비슷한 役割을 할 國際調整委員會를 두며 經費는 南北韓 共同負擔, 그것이 어려우면 國際的 支援을 動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서 「非武裝地帶를 平和地帶로 만들뿐 아니라 韓半島全體를 國際平和地帶化하는 것을 考慮해 볼만 하다」고 하고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는 韓半島의 國際平和地域化를 위한 貢獻條件이 될 것이다」라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李永鎬博士의 方案에서는 統一을 향한 諸過程의 分析이라든지 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諸般要素와 이를 達成하기 위한 措置 등에 대하여 適切하고 날카롭게 分析, 指摘하고 있으며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에 대해서도 그 內容과 實現段階를 치밀하고 상세하게 구상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南北再結合을 위한 研究와 政策樹立에 많은 寄與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다음 몇가지 事項에 대해서는 實現可能性 및 妥當性의 見地에서 批判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첫째, 軍事問題를 先決條件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實現可能하겠느냐이다.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을 위해서 먼저 非武裝地帶를 철저한 非軍事化地域으로 만들뿐 아니라 一定한 地域까지 雙方의 軍隊를 撤收시킬

것을 前提로 하는데 北韓側이 이에 선듯 応할 것 같지 않다.

李博士 自身도 「로저스」提案에 대한 北韓의 反應을 들어 受諾可能性이 거의 없음을 是認하면서도 最近의 事態變化와 平和利用에 대한 「매력적인 具體案」이 수반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軍事問題는 가장 合意하기 어렵고 더구나 現在의 北韓의 統一政策과 軍事路線에 비추어 볼 때 철저히 요새화된 非武装地帶 부근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웬만한 「매력적인 具體案」으로서는 받아들여지게 할 可能性이 없다고 생각된다. 他分野의 解決을 기다려서 非武装地帶問題를 解決하라는 것이 아니고 南北關係의 諸般問題를 해결할 基盤을 造成하자는 것이 目的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國際的 性格을 띠도록 하자는데 外勢排除原則에 비추어 妥當하고 可能하겠느냐이다.

雙方軍隊의 撤収를 위해서 國際監視團의 活動이 要請되고 撤軍과 同時에 非武装地帶에 國際平和軍을 導入시키고 平和利用을 위한 모든 事業에의 參加範圍도 國際적으로 하며 南北韓의 異見調整과 仲裁를 위하여 國際調整委員會가 必要하고 經費調達도 國際的 支援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7.4 南北共同聲明 第1項 첫째, 原則 즉,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解決하여야 한다」는 自主統一原則에 違背되지 않느냐는 妥當性の 問題를 야기시킬 것이다.

물론 他律的인 干涉에 의해서가 아니라 自主的으로 合意하고 枝葉的인 問題의 協助를 받는데 불과하다고 反論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극히 민감한 北韓側의 反應이 否定的일 것은 틀림없을 것 같고 南韓內에서도 바람직하나의 妥當性問題와 함께 解放後의 各種 經驗과 現在 베트남에서의 國際監視機能의 實態 등에 비추어 實効性問題에 대한 反對와 懷疑가 클 줄 안다.

세째, 擴大시킨 非武裝地帶에 「第三의 韓國」을 이룩한다는데 兩分된 韓半島를 三分시키는 結果가 될 수 있어 과연 바람직하나이다.

어떤 段階에 가서 非武裝地帶에 統一村을 만들어 統一韓國을 實驗하고 이와 같은 統一村은 「第三의 韓國」을 이룩하며 그 住民은 南北韓 어느쪽의 支配도 받지 않고 自治的 政治體制下에 살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韓半島를 三分시키는 狀態가 되며 그 內部에서의 自治政治體制와 國際調整委員會의 活動이 「實驗」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失敗할 경우에는 南北問題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政治的인 問題이고 解放直後의 韓半島 狀況과 類似한 環境을 造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V. 非武装地帶의 平和的 開發利用方案

- 融合地帶化方案 -

1. 境界線軟化過程

國家間的 關係는 그들이 相互間에 接하고 있는 境界線 즉 國境의 維持狀態에 가장 正確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個別 國家間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몇개의 國家群 相互間 즉 블록間的 關係에 있어서도 그렇고 分斷國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國際社會의 變遷過程은 곧 國境形態의 變遷過程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國境의 形態는 國家間的 關係를 단순히 反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家間的 關係를 變更시키는 重要한 原因이 되기도 한다. 國境上의 衝突事件은 國家間的 緊張事態를 誘發하는 直接的인 原因이 되고 때로는 戰爭으로 까지 몰고 가는 일이 적지 않으며 그러기에 종종 戰爭을 挑發시키는 手段으로 利用되어 왔다.

國境에 대한 研究는 戰爭의 防止와 國際的 協力の 要請이 強해 짐에 따라서 特定國家間的 關係나 特定國家의 對外政策을 分析하기 위한 目的에서 부터 나아가 國家間的 關係改善과 協力增進 내지는 統合의 促進을 위한 目的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이것은 具體적으로 가장 危險度가 높은 硬化된 國境을 如何히 順次的으로 軟化시킴으로써 安全國境化 시키느냐의 問題이다.

國境 또는 블록間이나 分斷國의 境界線은 그 危險度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分類 할 수 있다.

對立地帶型 - 平和地帶型 - 交流地帶型 - 融合地帶型

이것은 다시 細分할 수 있으며 이러한 順序는 바로 軟化시켜야 할 段階가 된다 .

對立地帶型에는 熱戰狀態에 있는 戰線型, 休戰對峙狀態에 있는 非武裝地帶型, 國交가 斷絶된 冷戰狀態의 障壁型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境界線 兩側에는 堡壘化된 軍事施設과 많은 兵力이 集結해 있는 것이 特徵이다 .

이러한 例는 國家關係가 惡化된 경우의 모든 國家間의 國境形態고 現在도 中東, 베트남, 韓國, 中 소 國境 등이 그것이다 .

平和地帶型에는 國交가 正常화된 外交 國境型, 國際河川 또는 中立地帶를 中間에 둔 緩衝國境型, 中立國家와의 平和國境型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國境線의 兩側에는 治安維持를 위한 警察力이 警비를 담당하고 있고 堡壘化된 障地는 存在하지 않는다 .

그 例로서는 國交正常화된 大部分의 國家間의 國境이 現在 이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中立國의 傳統이 오랜 國家와의 國境이 전형적인 것이다 .

交流國境型에는 經濟交流가 특히 빈번하고 關稅特恵가 베풀어진 關稅自由地域內의 經濟國境型, 住民의 往來와 通信 등이 간편화된 文化國境型 등이 속하며 國境이 극히 軟化되어 人爲的 장벽이 거의 除去된 상태이다 . 國境線은 遮斷棒 하나로 區別되는 수가 많고 交易都市가 發達해 있으며 出入에 있어서 visa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例로는 歐洲共同体에 속한 國家間의 國境과 美國과

Canada 間의 國境이 代表的이다.

끝으로 融合地帶型은 交流國境이 長期化되고 더욱 軟化되어 兩國이 높은 統合의 水準에 이르렀을 때의 境界線이다.

完全한 單一國家가 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말하자면 個別國家로서의 최소한의 主權 즉 自治權만을 가지고 있는 國家間的 境界線이기 때문에 融合地帶型國境은 지금까지 歷史上 長期間 繼續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美國의 獨立當時의 各自治州間的 境界線, 체코와 스토바키아가 체코스토바키아로 統合되던 當時의 境界線 및 발틱 三國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共和國이 소련 방에 속하게 될 當時의 상태 등이 典型的인 例이다.

이와는 달리 單一國家로 統合되지 않고 獨立國 또는 半獨立國이 되거나 隣接國의 共同管理地域 또는 自由都市를 형성하는 例도 있다.

룩셈부르크는 獨立國으로 되었으나 스위스와 같은 典型的인 中立國과는 다른 獨逸과 프랑스 및 벨지움 사이의 融合地帶이다.

안도라共和國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任命하는 議長團이 主宰하는 議會에 의하여 自治하지만 프랑스와 關稅聯合 關係에 있는 融合地帶型 國境의 또 다른 形態이다. 그 밖에 어느 一方國에 歸屬된 國境都市 또는 都市의 中間을 國境線이 지나는 都市로서 人種, 言語 등이 融合되고 生活圈이 兩國에 걸쳐 있어서 兩國의 接近을 促進하는 例이 많다. 우루과이와 브라질 사이의 리베라, 프랑스와 이태리 사이의 멘톤 등이다.

다음에 國境이 順次的으로 軟化되는 過程의 諸現象과 實例를 들어

보자.

첫째段階로서 熱戰狀態에서 休戰하게 되면 거의 例外없이 休戰線上에 非武装地帶를 設置한다. T.H Marshall Cornwall은 『將來의 國境劃定은 하나의 線이 아닌 3個의 線을 劃定할 것. 즉 政治的 境界線을 劃定하고 그에 平行하는 中立地帶를 設定하는 幅線을 만들 어야 한다』고 그의 著書 Geographic Disarmament (New York ; Duf ton 1947 pp1-8)에서 주장했다.

이것은 中立地帶가 對立國家間의 衝突回避에 큰 구실을 한다는 것 외에도 이 中立地帶의 적절한 管理와 利用을 통해서 더욱 安全한 國境을 造成할 수 있다는데 意義가 있다. 休戰時 非武装地帶를 設定한 例는 韓國의 경우 이전에도 1808年 8月 22日 프랑스와 聯合國들 사이의 休戰協定, 1866年 7月 26日 오스트리아와 普魯西亞間의 休戰協定, 1897年 그리스와 터키間의 2個의 休戰協定 1948年 1月 17日 暹羅와 인도네시아間, 1954年 7月 20日 인도네시아에서 그밖에 1961年의 중동, 인도차이나 등에서 모두 非武装地帶가 設定 되었다. 일반적으로 軍事分界線과 非武装地帶는 休戰協定の 첫째 軍事條項으로 設定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段階로서 休戰후에는 外交交渉 또는 平和條約에 의하여 國交가 正常化되면 國境이 軟化되어 보다 安全한 平和地帶型으로 된다.

그러한 例로는 1921年 3月 16日 터키와 소련간에 체결된 모스크바條約에 의하여 休戰線이 國境으로 安着된 것이라든지 그러나 그 후 1946年 소련의 일부지역 割讓要求로 發生한 緊張이 外交交渉으

로 解決되어 正當化된 것 또 소련이 이란에 1941년에 進격함으로써 紛爭地域이 되고 한때 自治地域이 된 Azerbaidzjhan이 그후의 外交交渉으로 1946年 이란에 復歸되고 소련이 뱀건설등의 원조를 하게된 것도 그 例이다. 그러나 第1次 世界大戰後 라인江邊에 設置되었던 非武装地帶가 히틀러의 一方的 進駐에 의하여 폐지되고 聯合國과의 對立을 招來하여 결국 2次大戰까지 발발한 것과 같이 非武装地帶가 平和地帶型의 國境으로 發展하지 못한 例도 많다.

세계段階로서 平和地帶型國境이 더욱 軟化되면 交流地帶型으로 된다. 여기에서는 經濟交流가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고 時期的으로도 다른 交流에 先行하는데 交易의 量的增大는 國境都市를 形成시키고 점차 自然科學을 先頭로 人文, 社會科學등의 交流가 빈번해 지며 國家間에는 共同의 機構가 多數設立되고 國境의 障壁은 大部分의 分野에서 除去된다. 이러한 例로서는 中共으로 하여금 西方國家中 英國과 가장 먼저 國交를 樹立하게 한 中共과 香港간의 國境軟化가 그것이며 歐州共同體의 結成과 美國과 Canada 그리고 最近의 東西베르린問題妥結도 이런 例에 넣을 수 있겠다.

나섯째段階인 融合地帶型國境으로의 軟化는 美國, 체코 기타 融合地帶에서 보듯이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또는 人種적으로 完全히 融合이 이루어 졌을때 하나의 單一國家가 되는 경우와 그 融合의 範圍가 限定된 地域에만 미쳤을 때는 그 地域이 緩衝의 役割을 하는 獨立國 또는 自治地域이 되는 경우 이다.

이런 地域을 사이에 둔 國家들은 점차 各分野에서 統合過程이 進

行되고 있다.

가장 안전한 國境임과 同時에 이미 従来の 概念上的 國境은 아니게 된다.

國際社會의 發達은 國境形態에서 觀察하면 融合地帶에 接近해 가는 諸過程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政治的 協商에 의해서 進展된 例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非政治的인 多元的 機能別 接近의 結果이다.

2. 共同開發利用의 目標와 接近方法

非武装地帶를 共同開發하여 平和的으로 利用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考察한 바와 같이 直接的으로는 緊張緩和와 武力行使可能性抑制, 經濟的學問的 有用性, 民族的 悲劇의 減小 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南北統一에 接近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豫想되는 統合過程에 適合하여야 하고 現在의 諸般條件에 相應하여야 할 뿐 아니라 完全한 統一을 効果的으로 促進시킬 수 있도록 그 目標와 接近方法이 長期的 眼目에서 設定되어야 한다.

먼저 非武装地帶 共同開發의 終局的 目標은 이 地帶를 境界線의 最終的 形態인 融合地帶로 만드는 것이다.

分斷의 障壁으로 하여금 南北關係를 安定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接着시키는 役割 즉 南北韓의 全面的(融合的) 再統一의 촉매작용을 하도록 設計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當장에 達成하자는 것이 아니다. 現實的으로 可能的 段階를 밟아서 對象領域이며 具體的 課

題도 紛争의 可能性이 적은 順位에 따라서 하나하나 實踐해 나가되 方向은 目標指向的이어야 한다. 즉 平和地帶化 → 交流地帶化 → 融合地帶化의 段階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南北融合地帶化의 目標은 좀더 次元을 높여서 共產圈과 西方圈間을 接觸, 交流, 融和시키는 東西融合地帶化를 推進함으로써 더욱 效果的으로 達成할 可能性이 있다. 東西貿易의 交易地로서의 可能性을 하나의 例로 들어 보자.

現在 世界貿易界의 눈은 極東에 쏠려 있다. 國民總生産 2千億\$을 超過한 日本市場과 8億人口를 가진 中共市場이 바로 韓半島를 사이에 두고 문을 열어가고 있다. 여기에 中共의 문을 열게한 美國과 시베리아 開發을 위해서 日本과 協議中인 소련이 역시 韓半島를 經由하지 않을 수 없으며 EC를 主軸으로 한 西歐諸國이 이에 無關心할 수 없다. 그리고 東西間의 交易量은 近来 擴大一路에 있다.

이들 諸國이 極東貿易의 交易所와 保稅加工地 또는 産業投資나 工場輸出地를 찾는다면 地理적으로, 經濟적으로 韓半島만한 適地가 없다. 그리고 非武裝地가 이러한 場所로 使用될 수 있는 可能性은 充分하다. 임진강 하구에 自由貿易港을 건설하고 非武裝地帶여 保稅地域을 設置하고 南韓의 勞動力을 利用하며 판문점을 통하는 경의선, 철원을 통과하는 경원선, 고성을 통과하는 東海線을 각각 개통시키고 또 高速道路를 건설하여 陸上運送의 편의를 제공하고 東京-서울-평양-北京의 航空線을 開設한다면 非武裝地帶를 中心으로 韓半島全体가 世界貿易의 一大中心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南北韓自身

도 韓国の 中共을 主対象으로 하는 共産圏과의 交易要請과 北韓의 日本을 主対象으로 하는 經濟交流要請이 차츰 具体化되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에 南北韓 相互間에도 利害關係가 調整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

다음으로 平和地帶, 交流地帶를 거쳐 融合地帶에 이르게 하자는 目標에의 接近方法으로는 다음 몇가지 事實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첫째, 非武装地帶는 軍事的 目的에서 設置된 것이고 現在도 大体로 그 機能을 遂行하고 있으며 原則적으로 合意하기 어려운 것이 軍事問題이므로 軍事問題를 先決條件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加급적 軍事的인 現狀況을 그대로 存置하면서 實行可能한 分野에서 課題를 選定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軍事施設이나 軍隊의 撤収는 先決條件이 아니라 그 結果가 되도록 해야 한다.

民間人과 平和施設의 점차적 증가에 따라 軍事施設은 차차 不必要 또는 不適當하게 되어 後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開發方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全体非武装地帶의 共同開發을 計劃할 것이 아니라 限定된 地域에 있어서 限定된 目的을 위한 開發을 해 나갈 것이고 그것도 休戰線 南北에 있어서 相互合意에 따라 相應적으로 各己 单独으로 開發함에서 出發하여 接觸部分만을 共同으로 開發利用하여야 한다. 이것이 成功的으로 實現된 후에 다시 共同開發地域과 그 利用方法을 모색해야 한다. 즉 相應的 各自開發利用에서 部分的 共同開發 利用으로 그리고 名實共히 共同開發利用으로 順次的으로 履行해 나가야 한다.

세제, 開發利用의 分野와 課題를 選定함에 있어서는 非武装地帶의 現狀變更에 利害關係를 가진 周辺強大國의 利害衝突과 이에 따른 影響力行使를 招來하지 않고 現段階에서 불가피한 南北의 體制守護原則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紛爭의 可能性이 많은 軍事問題나 政治問題와 가급적 無關한 部分부터 選擇하여야 한다. 이와 同時에 南北의 直接的인 利害得失이 均衡될 수 있고 指導者들의 期待를 높일 수 있으며 業務限界는 明確하고 經濟的으로 重要한 課題를 선택하여야 한다.

네제, 分斷國에 있어서는 社会的으로 自主意識이 強調되고 不干涉과 雙方의 平等이 強調되는 것이 一般的 現象일뿐 아니라 南北韓은 이미 7.4 共同聲明에서 統一의 原則으로 自主, 平和, 民族의 3原則에 合意하였으므로 非武装地帶의 開發利用에 있어서도 이를 철저히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外勢의 干涉과 分斷의 永久化의 우려를 낳게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共同開發과 平和利用을 主管할 共同機構의 構成과 運營에 있어서도 自主的이어야 하고 非政府機構여야 하며 南北住民의 信賴와 期待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開發과 利用의 管理는 自主的이어야 하지만 反面에 平和利用에 參加시킬 對象은 広範하게 開放하여 國際的으로 參與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20여년간 無人地帶로 放置하였으므로 生物에 대한 學術調査에는 國際的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平和保障의 效果를 더욱 높일 수 있고 交流地帶化를 促進시키기 위해서도 觀光客이나 貿易開

係者들의 유치가 요구된다.

3. 共同開發利用의 段階와 內容

(1) 數個의 南北通路開設

韓半島의 허리를 가로 질러 차단하고 있는 두꺼운 障壁인 非武裝地帶를 관통하는 가느다란 通路로서는 現在 板門店 하나가 있을 뿐이다.

民族의 悲願은 이 障壁을 허무는데 있고 南北이 對話를 하는 目的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對話가 시작될지도 2년이 된 지금 이 障壁에 몇개의 通路나마 더 開設한다는 것은 障壁을 그만큼 허무는 일이 되고 따라서 統一의 才一段階를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障壁에 通路가 뚫린다는 것은 커다란 意義를 가진다. 實際로 接觸과 交流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民族의 가슴에 심어줄 象徴的 意味가 더욱 重要하다.

그래도 板門店이 있었기에 20年동안 이곳에서 320여차의 軍事停戰委員會 本會談과 390여차의 秘書長會議가 열렸고, 南北의 記者들이 얼굴을 대할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歴史的인 南北赤十字代表와 調節委員會代表들이 만날 수 있었고 이 通路를 통하여 평양과 서울을 왕래할 수 있었다. 이 유일한 對話의 場所가 韓國의 板門店이 아니라 世界의 板門店으로 통할 만큼 유명해지는데는 그만큼 理由가 있기 때문이다. 通路開設의 場所는 地理的으로 板門店이 半島의 西部에 位置하는 京義線上에 있으므로 才一次로는 中部地方의 京原線上에

位置한 鉄原과 東部地方의 東海線上에 位置한 高城에 2個의 通路, 2個의 板門店을 增設하는 것이 좋겠다. 西部, 中部, 東部に 各各 通路가 있다는 것은 그 地域住民들에게 주는 心理的 効果도 있고 本来 그곳이 南北交通의 要地이기 때문에 앞으로 南北間의 各種交流 더 離散家族의 面會와 往來에도 便利할 것이다.

通路開設의 方法은 그것이 非武裝地帶 開發利用의 才一段階이기 때문에 一切의 軍事的 政治的 問題를 現在의 狀態로 存置시킨 가운데 休戰協定當時에 板門店을 開設하던 方式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簡便할 것이다. 非武裝地帶 全體의 開發利用을 論議한다면 先決問題로서 軍事問題, 政治問題가 어떻게 抬頭되지 않을 수 없고 休戰協定の 變更을 問題삼지 않을 수 없다. 극히 限定된 地域만을 休戰協定の 테두리 안에서 開發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先決問題나 기타 附隨될 問題때문에 突現이 어려워질 염려가 없다.

開發節次와 方法으로 서도 非武裝地帶中 軍事分界線의 南北은 各各 그 管轄權이 UN軍司令官과 北韓軍 및 中共軍司令官에게 있으므로 停戰委員會에서 合意만 되면 軍事分界線까지의 通路는 各各 獨自的으로 開設하고 板門店과 같은 共同管理地域에서 이를 연결하고 會議所 面會所등을 建設하면 된다.

기타 管理問題등도 板門店의 例에 따르면 될 것이다.

(2) 數個의 마을 및 농장의 建設

通路開設에 이어서 試圖해 볼 것이 非武装地帶內의 通路開設所 부근에 조그마한 마을과 이에 부수된 농지를 개간하는 일이다.

現在 板門店 부근의 南北 非武装地帶內에 各各 自由의 마을 大成洞과 平和村이 休戰直後에 建設되어 民間人이 居住하고 있다.

이것도 軍事停戰委員會에서의 合意로 이루어 졌으며 住民에 대한 管轄權은 休戰協定の 當事者인 兩側 軍司令官이 各各 가지고 있다. 大成洞住民에 대한 모든 管轄權은 UN軍司令官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納稅와 兵役의 義務까지 免除되고 있다.

非武装地帶의 開發利用은 첫 段階로 이 地帶를 平和地帶로 만들자는 것이므로 通路開設과 함께 民間人을 居住시키는 것이 그 內容으로 가장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마을과 농장의 建設方法이며 節次도 通路開設에서와 同一하게 軍事的, 政治的, 法的 問題를 先決條件으로 하지 않고 現狀態下에서 大成洞과 平和村의 例에 準하여 設置, 管理할 수 있을 것이다.

(3) 共同學術調查事業

2 個씩이나 非武装地帶內에 通路와 마을이 增設될 수 있게 되면 다음 段階로 企圖해 볼만한 일이 순수한 學術的이고 非常時의 事業인 動植物의 自然生態와 文化財에 대한 調查研究를 共同으로 實施하는 일이다. 물론 通路나 마을의 建設과 同時에 할 수도 있다.

非武装地帶는 20 여년간 人間의 발자취가 끈긴 地域이기 때문에

世界生物學者들의 關心을 끌고 있으므로 이 調查研究事業은 南北學者들이 共同으로 實施하되 國際적으로 많은 學者들을 參與시키는 國際的 規模로 할 필요가 있다 .

처음에는 몇개의 地域만을 限定할 수도 있으며 兩側軍隊는 그 安全과 便宜를 도모하는 범위내에서 그 地域内の 危險物을 除去하고 出入을 許可하면 된다 . 따라서 이 事業에 있어서도 政治的 軍事的 問題를 불러 일으킬 없이 간단한 節次로 實施可能해 질 것이다 .

調查結果는 다음에 實施할 全非武裝地帶의 開發利用計劃의 樹立에 資重한 資料를 提供할 것이며 特定地域을 生物保護區域 또는 文化財保護區域으로 하거나 이를 위하여 公園地帶 또는 觀光地帶를 設置하도록 助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通路에 開設된 共同會議場에서 共同研究와 調查報告의 會議을 開催하고 포본실과 실험실등의 施設을 設置하는 것도 意義있는 일이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文化的 事業과 施設이 共同으로 또는 國際적으로 非武裝地帶內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때 平和地帶에서 交流地帶로 그 類型이 變更될 수 있을 것이다 .

(4) 共同開發利用計劃樹立

特定分野의 學術調查事業이 成功할 수 있으면 다음 段階로는 各種 產業上 必要한 調查를 實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全体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과 綜合的인 平和利用을 위한 計劃을 共同으로 作成할 수 있을 것이다 .

非武裝地帶를 南北韓의 어느 地域보다도 人間의 生活圈과 自然保護

圈으로서 理想的인 地域으로 만들자는 決議와 그 具體的 靑写真을 作成하면서 民族分斷의 悲劇을 조금씩 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計劃樹立에 있어서는 統一된 未來의 韓國을 設計한다는 意味에서 南北韓의 모든 土地와 資源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全民族으로 부터 意見을 듣고 基金을 모집하여 또는 勞動力을 提供 받아 統一韓國의 第一段階를 建設하는 事業으로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많은 外國人의 넋이 잠든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南北의 融合地帶일 뿐만 아니라 東西의 融合地帶가 되도록 設計하여야 할 것이다.

(5) 共同管理機構設立

綜合的인 開發利用計劃이 完成될 段階에 이르면 本格的으로 이를 実行하기 위하여 先決問題, 節次上의 問題, 執行管理問題등을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政府單位로 解決한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많은 政治的 法的 問題를 야기시키고 또 어렵게 하기 때문에 非政府機構로 南北共同機構를 設立하여 解決하여야 한다.

물론 이 共同管理機構는 開發利用計劃을 樹立하기 위한 專門家會議에서 부터 태동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性質上 또 業務內容上 同一한 機構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機構를 처음부터 開發, 利用, 管理의 一切를 담당하는 一元的 機構로 強化시키는 것은 問題를 複雜하게 하고 政治機構化시킬 것이므로 各分野 및 各業務別 共同機構의 協議體 또는 聯合體的 會議機構로 하고 實際業務의 執行은 小單位의 機關을 多數設立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南北間에 設置된 南北調節委員會는 이러한 機構들
間의 調節을 맡을 것이다. 例를 들면 赤十字事業을 위하여는 南
北赤十字社가 共同機構를 設立하여 非武装地帶內에 事業所를 設置하
고 運當하되 南北共同管理機構에서 마련한 方針에 따라서 하고 이
러한 機構에서의 問題解決이 잘 되도록 南北調節委員會는 背後에서
調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各分野의 接觸, 交流가 始作되고 이를
위한 共同機構와 事業所가 非武装地帶內에 設置되면 共同管理機構에
소속된 團體가 되고 이 協議機構에서 마련한 節次와 內容에 따라
非武装地帶를 利用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共同管理機構가 成長하면 現在 雙方軍司令官이 가지고 있는
非武装地帶의 管轄權을 移讓받아 出入, 治安, 管理의 機能을 遂行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共同事業의 實施

이상과 같은 基盤이 造成되면 다음 段階로는 本格的인 共同事
業을 實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非武装地帶內의 南北管轄區域
에 걸쳐 道路와 農地를 개간할 수 있고 公園, 觀光施設을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經濟的 目的을 위한 南北合資의 会社와 같
은 團體를 組織하여 運當할 수 있다.

가장 앞서 實施할 수 있는 것은 前述한 學術, 芸術, 體育, 文化
人道등의 事業이나 行爲이 외에 營利事業으로서는 國際的인 觀光事業
과 共同漁撈事業일 것 같다.

그리고 南北間의 交易所, 東西의 交易所를 設置, 運當하고 나아가

非軍需品 生産工場을 設置하는 일이다. 会社の 設立은 同等額의 合資로 하고 選當도 共同으로 하며 利益의 分配도 同等하게 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南北間의 完製品의 交流보다 더 活潑해 질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非武裝內의 軍事分界線은 事實上 意味를 喪失하게 되고 非武裝地帶의 南北境界線도 軟化되어 出入이 간편해 질 것이며 적어도 南韓의 住民이 北方限界線까지 그리고 北韓의 住民이 南方限界線까지 往來하는 것은 상당히 自由롭게 될 것이다. 특히 外國人의 경우에는 南을 통해서 北으로 北을 통해서 南으로 往來하는 편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 段階는 交流地帶를 거쳐 融合地帶化하는 過程이 될 것이고 共同事業의 擴大와 交易量의 增大 그리고 南北韓을 通過하는 수송의 허용은 非武裝地帶를 더 이상 軍事地帶로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다. 軍隊는 撤収하게 되고 要塞는 觀光의 對象이 될 것이다.

이러한 非武裝地帶의 共同開發과 平和利用의 成功은 南北韓 完全統合의 經驗이 되고 좌표가 될 것이다.

V. 結 論

오는 7月 27日로 非武裝地帶가 南北을 가로막은지도 만 20年이 된다 .

그동안 이 人爲的 障壁은 두꺼워만 갔으며 이에 比例하여 單一民族의 異質化는 深化되고 있다 . 이대로 가다가는 分斷된 狀態에서 탄생하고 상극적인 상황하에서 성장한 世代만이 남게될 것인데 그 때도 同族의 一體感과 統一의 意志가 強烈할 수 있을 것인가는 問題이다 .

더구나 分斷의 責任이 있는 周邇強大國들은 自己들의 利益을 保障하기 위하여 分斷의 現象固定化를 推進하려는 것 같다 . 고조된 南北의 緊張은 戰爭을 유발시킬 것이고 不可避하게 介入하는 것을 願치 않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

여기에서 民族의 悲劇을 덜고 同一性을 維持하며 緊張을 緩和시키고 統一의 可能性을 確保하기 위한 南北對話가 自主的으로 始作되었다 . 南北赤十字會談과 7.4 共同聲明 그리고 南北調節委員會의 活動은 5천만 民族의 念願을 反影한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對話가 계기가 되어 統一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自信있게 豫見할 수 없는 狀態에 있다 .

지난 2年間의 對話는 우리에게 커다란 希望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障壁이 두껍고 不信과 差異가 크다는 것도 突感하게 했으며 따라서 不安과 失望도 크지 않을 수 없었다 .

어느側도 과감하게 進展시키기 어려운 障壁을 느끼면서도 또한 이것을 中斷시키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없는 狀態에 있다. 또한 國際情勢는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다.

일단 긴장완화와 對話를 용이하게 했던 근래의 狀況이 오히려 分斷을 고착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급변하여 장벽을 더욱 높일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서 可視的 障壁인 非武裝地帶를 더 이상 緊張造成의 震源地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무산될지도 모르는 그 동안에 이룬 對話의 結實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非武裝地帶라는 障壁을 하나씩 허물어 가는 共同開發과 平和利用에 눈을 돌리자는 것이다.

非武裝地帶는 그것이 軍事的, 政治的 產物이기 때문에 그 開發利用은 統一의 마지막 순간에 自然히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고 다른 問題에 앞서 해결하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을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研究結果의 最大結論이다.

非武裝地帶를 開發利用할 수 있는 可能性이 다른 問題解決의 可能性보다 적지 않을뿐 아니라 南北의 利害關係의 調整과 國際的 与件造成에 있어서 오히려 有利한 狀況下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非武裝地帶의 平和利用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統合過程의 全般에 걸쳐 지극히 클 것이라는 事實이 判明된다.

또한 非武裝地帶의 開發利用은 우선 軍隊撤収라든지 平和協定締結이라든지 하는 軍事的, 政治的 問題가 先行條件으로 解決되어야 비로소 實現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一般的인 생각이지만 本研究結果는 그

와는 反對로 軍事的, 政治的 問題는 可及的 問題삼지 말고 現狀態에서 可能的 部分的, 分野別 開發利用을 점차 擴大시킴으로써 結果적으로 軍事問題와 政治問題를 解決시킬 수 있으리라는 結論에 到達한다.

끝으로 本研究에서는 非武装地帶를 段階적으로 變形시킬 모형으로서 平和地帶, 交流地帶, 融合地帶를 設定하고 이에 接近해가기 위한 具體的인 實踐課題와 그方法을 諸般事項을 고려하여 모색해 보았다.

非武装地帶의 開發利用 目標가 궁극적으로는 단지 긴장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南北의 完全統一을 촉매할 融合地帶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東西冷戰이 가장 치열했고 또 열전으로 화됐던 이 地域을 東西間의 交流地帶내지는 融合地帶로 까지 發展시키자는 것이고 이것은 可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統一을 촉진시키는 國際的 與件을 造成하리라는 것이다.